

# 2016 건설산업 CEO 미래



대한건설협회

2016. 9. 29(목) 10:00(금)

메종글래드 제주



건설, 혁신의 길을 찾다 29일 오후 제주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건설산업의 재도약! 혁신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6 건설산업 CEO미래전략포럼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안운수기자 ays77@

## “건설 新패러다임 구축,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서 강조

“부패방지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은 필수적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16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서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사진)는 29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건설산업의 재도약! 혁신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16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성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37위에 머물러, 국제적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시험대다.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공감한다면, 우회도와 편법을 찾기보다는 솔선수

범과 의식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송석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더딘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소비·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높다”고 진단한 뒤 “한국경제 성장은 그래도 건설산업의 활”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은 “앞으로 건설산업은 공간과 산업을 통합하는 신성장동력 발굴, 복지형 도시정비·노후건축물 성능향상, 인프라 관련 대도시 교통난 해소사업(GTX·노후전철 지하화), 타사업과의 융·복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올해 포럼은 주 테마를 ‘건설산업의 재도약, 혁신에서 길을 찾다’로 선정했다. 당면한 건설업계



의 위기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옛말에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글씨를 잘 쓰는 이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도 위기를 닦기보다는 오히려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잘못된 관행은 털어버리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교통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제도 안전적으로 정착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설산업의 위해 건설업등록증 불발대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2016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은 30일까지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포럼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과 전국 16개 시·도회장 및 대의원 등 건설사 대표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건설단체장, 건설 관련 연구기관장, 정부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협회, 2016 회계연도 1회 임시총회

## “SOC 건설투자 확대에 힘 쏟을것”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9일 제주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2016년도 제1회 임시총회(사진)를 개최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이사 3인 사임에 따른 보선의 건은 대한건설협회장에 위임해 (건설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협회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마련과 회원사의 고충해소, 수익성 개선에 사업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해 도입된 중심제와 종평제의 낙찰

률을 각각 80%대와 90%대로 크게 향상시켰다. 또 실적공사비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가격 체계인 표준시장단가로의 전환율을 80% 수준까지 높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하반기에도 SOC 건설투자 확대와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분리발주 등 업역침해와 국회의 각종 규제강화 법안에 강력 대응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 “동서고속철 연계사업 발굴해야”

(춘천~속초 구간)

역세권 개발·관광산업 육성 등  
시군별 발전방향 재정립 통해  
국책사업 추가재원 확보 필요  
강원발전연구원 제안

강원지역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104억원)과 동서녹색평화도로(133억원) 등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역별 맞춤형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연구원은 동서고속철도 추진이 본격화되는 만큼 접경지역의 맞춤형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해 정부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이와 연계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동서고속철도 건설로 지역별 역세권 계획과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아메니티 타운 조성, 스마트 관광



재정립이 필요하다. 춘천과 화천 등 강원 북부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만큼 지역문화축제 등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속초, 고성 등 해안지역은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역세권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동서고속철도 노선이 지나는 춘천과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지역에는 지역개발과 연계한 철도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철도를 지역 교통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고속도로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동해선 철도와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지역 시·군별 발전방향도

활성화를 통해 항공-철도-크루즈로 연결되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광 전략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춘천과 비무장지대(DMZ) 생태권, 설악권, 동해안권을 잇는 관광벨트 추진 등이 꼽힌다.

다만 연구원은 이들 지역개발 사업을 가능한한 국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응 논리 개발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와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 강원도, 동서고속철 조기완공가치창출 선제 대응

시·군 협업,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지역별 특성화 등 발전안 모색

강원도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동서고속철도) 조기 완공 및 지역 가치창출에 선제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의 동서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군별로 철도망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전략을 자체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강원도형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9일 도와 관련 7개 시·군 실무자가 참여해 간담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 대응 및 국비 안정적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11월까지 만·관·학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도 북부권의 발전과 지역 가치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도와 시·군 간 협업을 위해 시·군 협력관 파견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요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군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앞서 지난 7일 춘천속초 철도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도는 앞으로 국내외 철도 역세권 개발 성공 도시 등을 벤치마킹해 성공사례를 평가·분석하는 등 지역별, 시·군별 특색있는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선진국의 실버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미국을 방문 중이다.

실버타운 조성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경제력 있는 실버세대를 유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동서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등 접경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유망지 발굴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세부 문제는 노선 인근 시·군과 함께 발족한 철도추진단을 통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속초 91.8km에 철도를 놓는 것이다. 2조2114억원을 투자하며 사업 기간은 8년이다.

기존 경춘선과 연결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5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했으며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